

영상자료가 지니는 외국어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 : 공손한 언어를 중심으로

The Value of Film as Material f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Using Polite Discourse

김혜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Hye-Jeong Kim(naa4907@kookmi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권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가 외국어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공손한 언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영어를 학습할 때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로 많은 학습자들은 실용적 표현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불쾌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중하고 예의바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상 생활 속 공손한 언어의 학습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 드라마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를 이용하여 이 드라마에서 사용된 공손한 언어를 분석하고 제 2언어 학습 시 공손한 표현을 의식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손한 표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운튼 애비*에 나타난 공손한 언어를 장기 기억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조별 학습 활동으로 동영상 촬영하기와 캐릭터 파악하기를 제안한다. 다양한 장르와 다채로운 주제를 지닌 영상자료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의 다양한 언어 기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폭넓은 콘텐츠이다. 외국어 학습자라면 영화나 드라마, 시트콤을 자신의 학습 목적에 맞는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습의 동기부여와 흥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중심어 : | 영상자료 | 공손한 언어 | 예의바른 표현 | 외국어 | 드라마 | 영화 |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value of English-language films as material for learning a foreign tongue using polite discourse. In daily life, when we decline an invitation or convey unpleasant information to a listener, we use polite expressions; we are careful with our words. English language learners need to learn polite expressions in order to interact peacefully with others; doing so can minimize conflict, which is inherent in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he British drama *Downton Abbey*, which is about aristocracy.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e discourse used in *Downton Abbey* and insists that students need to learn it explicitly. It is important to learn the polite expressions of this authentic drama in a real classroom. This study suggests that students work in groups to create a short video, and to t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personalities. Movies, TV dramas, and sitcoms provide great content that shows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language that students want to learn. As a source of learning material, film can help improve students' motivation and interest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 keyword : | Film | Polite Language | Polite Expressions | Foreign Language | Drama | Movie |

I. 서론

일반적으로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위안을 제공하거나 재미와 유머를 통해 일상 속 즐거움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주제와 다양한 장르의 영화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며 다른 나라의 언어 및 문화를 학습하는데도 유용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권 나라의 영화가 제 2언어 즉, 영어를 위한 학습 자료로 이용되어 온지는 꽤 오래되었으며, 세계화 추세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와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영화는 많은 학습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료로 애용되어 오고 있다.

영화나 미드를 이용한 영어 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활발한데, 이경순[6]은 영어권 문화 교육을 위해 영화의 활용을 적극 제안한 바 있다. 김동규[1]는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The Bridges of Madison County)’를 활용한 듣기 수업에서 명시적 듣기 전략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김혜정[3]은 ‘뉴욕은 언제나 사랑 중(The Accidental Husband)’을 활용한 영어 작문 수업의 방법과 평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영화 연구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던 대사나 영화에서 갖는 의미가 재조명되기도 하였으며[4], 영화를 활용한 교육은 문학적 소양을 위한 학습, 역사와 정치,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 교육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5]. 같은 맥락에서 김용섭[2]은 영화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The Chronicles of Narnia: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을 활용해서 문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언어 교육기관에서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및 인문 교육까지 확장시킨 것을 보면 영상미디어 활용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자료가 제 2언어 학습 자료로서 지니는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2언어의 기능과 학습 범주가 매우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손한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시중 교재를 살펴보면 언어의 실용적 의미나 문법적 측면 또는 대화 시 지

니는 표현의 기능 등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같은 말이라도 공손하고 세련되게 전달하는 언어에는 집중하는 경향이 덜하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면서 많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은 제 2언어의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실용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 불쾌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으로 *Will you close the door?*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및 말화 상황에 따라 *Could you close the door?*,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등으로 각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초청에 대한 거절로 많은 학습자들은 *I'd love to, but I'm busy*를 실용적인 표현으로 학습했지만 *Nothing would give me more pleasure, but I'm a little busy at the moment*(그 어떠한 것도 초청해주시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제게 줄 수 없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좀 바쁘겠네요; *Downton Abbey*에서 한 백작이 귀족 부인의 초청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대사)를 사용한다면 같은 거절이라도 훨씬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표현되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크게 효과적일 수 있다.

제 2언어 학습 시 공손한 표현의 학습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 2언어 학습 시 의식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는 공손한 표현이 영상 자료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교실 현장에서 공손한 표현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자료가 제 2언어의 학습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공손함이란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상대방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며

관습적 행동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11]. 공손함이란 다른 사람의 체면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공적인 이미지(public self-image)를 인정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또한 공손함이란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 본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대인 관계에 필요한 체계이다[13].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은 의사소통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대화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고 대화자들 간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20]. 화자가 속한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행동의 규범이기 때문에 공손함의 기준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다르다. 공손함의 다양성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Watts(p.39)[22]는 공손함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Politeness is the natural attribute of a 'good' character.
2. Politeness is the ability to please others through one's external actions.
3. Politeness is the ideal union between the character of an individual and his external actions.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예의를 차려야 하는 관계로 파악되어야 하고 발화되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면 화자와 청자 간에 오고가는 언어가 예의를 표현하는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공손함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He와 Ran(p.115)[12]은 공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Politeness = language form + situation where the utterance is occurred + S and H relationship.
(공손함 = 언어 형태 + 발화가 발생하는 상황 +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

게 된다(p.133)[19]. 이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은 다소 불쾌하거나 거북한 내용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 조화롭고 부드러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Cruse[8]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공손한 표현이 문화마다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Deng와 Liu(p.76)[9]는 중국과 서양의 공손함의 표출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옷이 너무 예쁘네요(Your dress looks very nice!)”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중국인들은 “아니에요, 보통 입는 옷인데요 뭘?”이라고 답함으로써 칭찬에 대해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칭찬을 들으니 부끄럽다(I feel ashamed to hear that)”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반해 서양인들은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다(I'm glad to hear that)”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한다.

Bergelson[7]은 미국과 러시아의 공손 표현을 비교하였는데 미국에서 직접표현은 무례하다고 간주되지만 러시아에서는 신의와 성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명령 표현은 폴란드[15]와 러시아[17]에서는 정중한 요청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간접 표현은 시간 낭비이며,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화마다 공손 표현이 다른 점에 대해서 Wang[20]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공손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자각을 통해 대화에서의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있으며 대화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uh[18]는 영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과 미국인 원어민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의 요청 전략을 실험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국 원어민들은 한국인 학습자들보다 *can you...?*와 같은 관습적으로 간접적인 전략 사용을 선호하였으며 반면 직접적 표현(명령적 표현)을 한국인 학생들이 더 잘 사용하였다. 두 집단 모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친한 관계에서는 덜 공손한 전략을 사용하고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관계일수록 두 집단은 요청할 때 더욱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동일한 맥락으로 Walkinshaw[21]는 영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들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원어민의 의견에 반대할 때는 언어적으로 복잡하고 화용론적으로 정

교한 공손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그들이 잘 아는 원어 민일 경우에는 간단하면서 직접적인 공손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손함의 기능과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 및 공손함이 표현되는 언어 형태에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목표언어 문화의 공손함 기준(politeness norms)을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빈도수 높게 사용되는 공손한 표현을 하나의 루틴으로 습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이것은 언어적 사회화(linguistic socialization)가 되는 증거이다[10].

III. 영상자료에 나타난 공손함

1. 연구 자료

수업 자료는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라는 영국의 시대극으로 1920년대 영국의 시대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원래 처음에는 시즌 2까지를 목표로 방영되었으나 전 세계적인 높은 인기에 힘입어 시즌 6까지 제작되었다. 겉으로는 당대 귀족들의 삶을 평범하게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운튼 애비*는 제 1차 세계 대전부터 1920년대까지의 흐름 속에서 전쟁 후 사회가 겪게 되는 시대적 변화 및 여성 위상의 변화와 이에 대한 캐릭터들의 자각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다운튼 애비*는 크로울리(Crawley) 집안이 소유한 영지 이름이다. 크로울리 귀족 부부에게는 슬하에 딸만 셋이 있다. 이 당시 영국 법은 장자 상속법으로 딸에게는 재산과 영지를 상속하지 않도록 제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첫째 딸 메리(Mary)의 사윗감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 드라마는 시작된다. 귀족들의 삶과 이들을 모시고 사는 하인들의 삶을 교차로 보여주며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드라마에는 당대 귀족들이 썼던 품위있는 표현이나 하인들이 그들의 주인을

응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중을 기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본 연구의 주제에 알맞은 자료라 판단된다.

2. *Downton Abbey*에 나타난 공손한 표현

공손한 표현이라는 것이 사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운튼 애비*에 등장하는 모든 대사들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손한 영어 표현과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손의 보편적 기준(the universal basis of politeness)에 근거하면,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손 시스템이 이러한 사람들 간의 내재적 문제를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고 한다[14].

이에 본 연구는 공손 원리 중 완화(mitigation) 원리를 따르고자 하며, 완화 원리란 불손하거나 예의바르지 않는 표현이 주는 영향이나 효과를 최소화하고 예의바른 발화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리로써 전자를 부정적 공손성(negative politeness)이라 하고 후자를 긍정적 공손성(positive politeness)이라 한다[16]. 본 연구에서는 완화 원리를 근거로 하여 *다운튼 애비*의 공손 표현을 부정적 공손성과 긍정적 공손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대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운튼 애비*에서 제시되는 영어 표현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 표현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차이의 간극을 다 메울 순 없다 하더라도, 공손함의 가장 기본 원리인 완화 원리를 기본적 척도로 이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공손성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시즌 1 에피소드 2에서 크로울리 가문의 첫째 사위로 점찍어졌던 제임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이로 인해 먼 친척인 매튜(Matthew)는 하루아침에 *다운튼 애비*의 상속자가 된다. 로버트(Robert) 백작은 본인의 영지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매튜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빙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Robert: About your scheme for restoring the estate cottages. **You don't mind my interfering?**
My dear fellow, I brought you here to interfere. In fact, why don't you stay for dinner and we'll talk about it? We'll send down to Molesley for your clothes.

Matthew: I better not. My mother's expecting me.

백작은 매튜가 영지의 작은 집들을 복원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이를 위해 *You don't mind my interfering?*(내가 참견 좀 해도 되겠나?)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이 그의 일에 관심이 많으며 충분히 충고해주고 도와줄 의향이 있음을 비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I'm interested in your job and I'd like to interfere*로 훨씬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로버트 백작은 매튜에게 '참견'이라는 말이 전하는 불쾌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정적 공손성을 이용함으로써 본인의 참견을 매우 품위있게 정당화하고 있다.

Matthew: In fact, I've been meaning to speak to you about Molesley.

Robert: Oh?

Matthew: **Would you find me very ungrateful if I dispensed with his services?**

Robert: Why? Has he displeased you in some way?

Matthew: Not at all. It's simply that he's superfluous to our style of living.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매튜는 로버트 백작이 개인비서처럼 붙여준 모즐리(Molesley)라는 하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로버트 백작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니 그가 언짢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적 공손성을 이용하여 매우 예의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Would you find me very ungrateful if I dispensed with his services?*(모즐리의 봉사를 받지 않겠다면 제가 배운망덕한 것일까요?)라는 표현에서 그가 부정적 공손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예의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보통 *I'd like to dispense with his services*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호의를 베푼 상대방을 배려해서 *would you find me very ungrateful....?*이라는 표현을 써서 로버트 백작에게 조심스럽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모습은 코라(Cora) 부인과 그녀의 시어머니 바이올렛(Violet) 사이의 대화에서도 발견된다. 재산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메리의 사윗감을 알아보는데 주력하던 코라 부인은 어느 날 본인이 뒤늦게 늦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늦둥이가 아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일은 온 집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된다. 시어머니인 바이올렛은 며느리의 임신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몸조리 잘할 것을 그녀에게 신신 당부한다.

Violet: Wonderful news, of course. You must look after yourself.

Cora: Don't worry. **O'Brien has me wrapped in silk and feathers.**

Violet: You're lucky.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임신이 너무 기쁜 소식이라며 몸조심 하라고 당부하고 이에 코라 부인은 매우 조심하고 있음을 *silk and feathers* 라는 표현을 써서 매우 멋드러지게 전달하고 있다. 그녀의 전담 하녀인 오브라이언(O'Brien)이 그녀를 실크와 깃털로 자신을 감싸준다고 함으로써 매우 고귀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단지 실용적인 표현으로 *She takes good care of me*라고 전달할 수 있는 말이지만 *wrapped in silk and feathers*라고 함으로써 긍정적 공손성을 이용하여 얼마나 몸조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극대화 하여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떤 어휘,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본인의 메시지가 얼마나 세련되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긍정적 공손성이 미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면 드라마와 같은 영상 자료가 공손한 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적절한 교재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공손한 언어가 사용될 경우 충

족되어야 하는 조건들,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문맥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공손한 언어를 표현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는 공손한 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IV. 교실 현장에서의 드라마 활용 방안

드라마에서 나타난 품위 있는 표현을 분석하고 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실질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운튼 애비*에 나타난 공손한 표현들을 장기 기억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조별 학습 활동으로 역할극 동영상 촬영하기와 캐릭터 성격 파악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운튼 애비*에 나온 영어 어휘 수준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의 정도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 활동은 고등학교, 대학생 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역할극 동영상 촬영하기는 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들을 모방해서 연습하는 통제된 역할극을 학습자들의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활동이다. 영상 속 캐릭터들이 얼마나 품위있게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우아한 표현에 전달되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제 2언어의 실질적인 학습으로는 부족하다. 역할극 연습을 할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캐릭터의 감정이나 표정 또는 몸짓 등을 그대로 흉내내어 그 역할에 몰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역할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그 캐릭터가 사용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캐릭터를 모방하여 품위있는 표현을 직접 따라해 보고 느끼고 전달해 봄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보통의 수업에서는 역할극 연습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별로 자신들이 연습한 역할극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수업 전용 사이트에 업로드 하도록 한다. 그런 후 교사는 수업 사이트를 오픈하여 스크린으로 각 조의

동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실제 다른 조원들이 어떻게 역할극을 했는지 반 전체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 드라마와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이 사용한 표현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며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

4장에서 제시했던 어떤 장면을 활용해도 역할극 동영상 촬영하기는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에 몰입하여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특징 없는 잔잔한 대화보다는 격정적인 갈등 장면이나 흥분하는 등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특성을 강렬하게 나타내는 장면을 역할극 동영상 촬영하기에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다운튼 애비* 시즌1에서 첫째 딸 메리와 그녀의 결혼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의견 대립 장면이나 아래 부분에 제시할 로버트와 그의 어머니 바이올렛간의 비난과 갈등이 담긴 대화를 역할극 동영상 촬영하기에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공손한 표현을 연습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등장인물 성격 파악하기 활동은 주어진 장면을 보고 내용과 공손한 표현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그 영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해 보도록 한다. 조별로 토론해서 성격을 규정해 보도록 한 후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선택해서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다운튼 애비* 시즌1 에피소드 1편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첫째 딸의 사위감을 찾는 과정에서 할머니 바이올렛과 그녀의 아들 로버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 딸의 사랑을 존중하겠다는 로버트와 정략결혼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할머니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데 너무 감상적인 아들에게 그녀는 사랑 따위에 신경쓰다가는 전 재산을 남한테 넘기는 꼴이 된다며 도대체 다운튼 영지를 신경쓰기는 하느냐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에 대해 높은 톤으로 항변하는 아들 로버트 백작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Violet(mother) : Don't you care about Downton?

Robert(son) : What do YOU think? **I've given my life to Downton.** I was born here and I hope to die here. I claim no career

beyond the nurture of this house and the estate. **It is my third parent and my fourth child.** Do I care about it?
Yes, I do care!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학습자들은 할머니의 성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다고 표현했고 아버지 로버트의 성격은 자궁심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아버지 성격을 추론한 근거가 되는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given my life to Downton*로 정의할 수 있고 자신의 영지를 *my third parent and my fourth child*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인의 영지에 신경이나 쓰냐며 비꼬듯 하는 할머니의 질문에 로버트가 진정 전달하고자 하는 대답은 맨 마지막 줄에 제시된 *Yes, I do care!* 이다. 할머니의 질문에 이 문장만 답하면 되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거나 자식과도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얼마나 자신이 영지에 신경쓰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다. 문맥 없이 표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공손한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어머니인 바이올렛의 질문에 로버트는 화가 치밀지만 매우 절제된 톤으로 예의바르게 응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극대화 시켜서 전달하기 위해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학습 방안이 될 수 있다. 조별로 모여서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근거가 되는 어구를 찾아내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을 익히게 된다.

토론만으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스피드 게임을 도입하여 성격 파악하기 스피드 토론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정 등장인물을 제시한 후 성격을 파악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는 활동을 가장 먼저 달성하는 조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스피드 게임처럼 진행하면 학습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격에 맞게 나온 표현들을 매치시킬 수 있게 된다. 귀족 집안이라 수많은 손님들이 들락거리고 하인들도 다양한 사건으로 꽤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탐구해 볼 등장인물들이 많

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활동은 이 드라마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토론 활동이 끝난 후에는 역할극 활동으로 이어서 접목시킬 수도 있고, 수업 시간 관계상 토론 결과에 대해 모든 조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역할극 동영상 촬영하기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 조의 의견을 수업 전용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다른 조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상자료가 지니는 제 2언어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 공손한 표현의 학습 필요성을 피력하고 공손한 언어가 *다운튼 애비*라는 시대극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학습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하기와 캐릭터 파악하기와 같은 학습 활동을 통해 제 2언어 학습 시 공손한 표현을 의식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실 제 2언어 학습 시 교육 현장에서 예의바르고 공손함을 지닌 언어만을 따로 분류하여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학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손한 표현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제 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공손 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화와 드라마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발화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및 발화 내용이 모두 한꺼번에 제시되고 함께 작용하여 그 문맥에서 쓰이는 예의바른 표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그 표현이 지니는 언어적, 사회적 발화 기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라마를 활용하여 공손 언어 학습에 접근하였다는 점과 제 2언어 학습 시 다양한 품격 있는 언어의 기능을 학습하는데 영상자료가 충분히 그 학습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공손한 표현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교육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지정한 영국 드라마가 1920년대의 격변하는 영국 사회를 반영한 작품이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장면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4장에서 언급한 일부 공손한 표현들이 현대 영어에서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손한 표현들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현대적 상황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분석하고 다듬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손한 표현의 명시적 학습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손한 표현을 하나의 큰 범주로 다루었는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공손한 표현도 발화 상황과 청자, 발화 내용 등에 따라 공손도 정도, 즉 공손도 척도가 분류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손의 정도가 나누어지는 척도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그 척도에 맞게 대화에 쓰인 공손 표현들을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손한 표현의 학습을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이런 방법으로 학습하였을 경우 학습자들의 영어 공손 표현력이 향상되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주제를 지닌 영상자료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다양한 언어 기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폭넓은 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2언어로 영어 학습을 위해 영국 드라마를 통해 공손한 언어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모든 언어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영상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다양한 언어 기능이 범주화 되어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동규, “영화 활용 수업에서 듣기 전략 훈련이 EFL 학습자의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상영어교육*, 제16권, 제1호, pp.65-84, 2015.
- [2] 김용섭,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1069-1078, 2013.
- [3] 김혜정, “영화를 활용한 영어작문과 그 평가에 대한 연구: 수업절차와 평가활동을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제16권, 제1호, pp.85-109, 2015.
- [4] 유은순, “영화 대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등장인물의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95-107, 2013.
- [5] 육정학, “영화교육의 통섭방법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607-617, 2014.
- [6] 이경순, “다른 세계들, 다른 텍스트들: 영어권 문화강의에서의 영화의 활용,” *문학과 영상*, 제3권, 제2호, pp.61-92, 2002.
- [7] http://russcomm.ru/eng/rca_biblio/b/bergelson03_eng.shtml
- [8] A. Cruse, *Meaning in learning: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9] Y. Deng and R. Liu, *Language and culture*,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ress, 1997.
- [10] J. B. Gleason, R. Y. Perlmann, and E. B. Grief, “What’s the magic word: Learning language through politeness routines,” *Discourse Processes*, Vol.7, No.4, pp.493-502, 1984.
- [11] Y. Gu, “Pragmatic politeness and culture,”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Vol.4, pp.30-32, 1992.
- [12] Z. He and Y. Ran, *A survey of pragmatics*, Hunan Education Press, 2006.
- [13] R. Lakoff, *Talking power: The politics of language*, Basic Books, 1990.
- [14] V. LoCastro,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Social action for language teacher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3.
- [15] A. Lubecka, *Requests, invitations, apologies and compliments in American English and Polish: A cross-cultural communication*

perspective, Księgarnia Akademicka, 2000.

- [16] J. L. May, *Pragmatics: An introduction*, Blackwell, 2001.
- [17] M. H. Mills, "Conventionalized politeness in Russian requests: A pragmatic view of indirectness," *Russian Linguistics*, Vol.16, No.1, pp.65-78, 1992.
- [18] J. S. Suh, "Pragmatic perception of politeness in request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RAL*, Vol.37, No.3, pp.195-214, 1999.
- [19] J. Thomas, *Meaning in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Longman, 1995.
- [20] Z. Wang, "Raising and lowering speaker's or hearer's position in the politeness principle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Vol.XVIII, No.1, pp.286-297, 2009.
- [21] I. Walkinshaw, *Learning politeness: Disagreement in a second language*, Peter Lang, 2009.
- [22] R. J. Watts, *Pol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저 자 소 개

김 혜 정(Hye-Jeo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국민대학교 영어교육(석사)
- 2005년 2월 : 국민대학교 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현재 : 영상영어 교육학회(STEM) 영화분과 이사
 <관심분야> : 영상영어, 영어교육